

잃어버린 전래동요의 원형을 찾아서

《전래동요를 찾아서》 펴낸 홍양자씨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대부분의 동요는 놀랍게도 왜색풍 노래다. 3년전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라는 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홍양자씨가 우리 전래동요를 복원한 책을 펴냈다. 100여곡에 이르는 우리 전래동요들을 찾아낸 이번 책은, 제일 한국인 3세인 저자의 또다른 ‘뿌리찾기’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영감 영감 장구쳐라 / 할맘 할맘 춤추어라” “개똥불아 개똥불아 / 번쩍번쩍 개똥불아 / 이리 와서 나와 놀자” 옛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렀던 노래다. 앞의 노래는 달팽이가 더듬이를 내미는 모양을 노래한 것이고, 두번째 노래는 아이들이 반딧불이를 잡을 때 부르던 노래다.

100곡에 이르는 전래동요 찾아내

비오는 날 요즘 아이들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아마도 심중팔구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라는 창작동요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옛 아이들은 “비야 비야 오지 마라 / 우리 누나 시집 간다”는 노래를 불렀다. 그렇다면 그 많던 전래동요는 다 어디에 있을까? 홍양자씨(43, 전 동국대 국악과 강사)가 펴낸 《전래동요를 찾아서》(우리교육)에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불렀던 전래동요와 놀이노래들의 원형이 담겨 있다.

“우리 전래동요는 술한 세월 동안 불려온 노래들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민족의 생활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의 99%가 왜색풍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이 작업만은 꼭 매듭짓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성과는 잊혀져 가는 우리의 전래동요들을 복원해냈다는 것이다. 100곡에 달하는 우리의 전래동요들이 가사와 함께 아이들의 목소리로 재현돼 CD에 담겨 있다. 뿐만 아니



홍양자씨

우리교육/A5신/220면/10,000원

라 이 책은 전래동요의 속성과 전통을 이어받은 노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외래(外來)동요를 우리것으로 만들어 다시 보급할 수 있는 방법과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음악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때 배우는 노래는 미·솔·라 3음으로 된 전래동요밖에 없습니다. 2,3학년에 가서야 외국의 전래동요를 약간씩 배웁니다. 헝가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자기 나라 음악만 배워 기초를 다지게 하고 그 후에 다른 나라 음악을 가르치지요.”

그가 전래동요에 관심을 가진 계기는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일 한국인 3세로 태어난 그는 일본 오사카의 한국인 학교에서 전통음악을 가르쳤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통음악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1990년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로 유학을 왔다. 그의 석사 논문 《한국 어린이가 부르고 있는 일본의 와라베우타(전래동요)》는 97년 그가 지은 책 《빼앗긴 정서 빼앗긴 문화》의 모태가 됐다. 이 책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의 대부분이 일본동요라는 것을 고발한 책으로 “아침바람 찬 바람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우리집에 왜 왔니”와 같은 노래들이 사실은 왜래(倭來)동요라는 것을 밝혀냈다.

앞으로 전통놀이 연구할 계획

“그러나 책 출간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왜래동요가 전래동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노래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왜 굳이 일본 노래를 가르친단 말입니까?”

우리음악을 기형적으로 만든 데는 교육자와 음악가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고 그는 말한다. 구전되면서 변형되는 것이 전래동요의 가장 큰 특징인데, 악보나 음반으로 ‘체록’되면서 노래형식이 단일하게 고정돼 창조적인 계승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그가 이 책을 내기까지에는 어려움도 많았다.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음반제작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우리의 전래동요를 배우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많은 위안이 됐다.

오는 4월말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다. 평소 아이들의 놀이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우리의 전통 놀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일 한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것도 그의 조그만 욕심이다. — 최갑수 기자

